

# 금강하류의 포구 취락

-입포를 중심으로-

방갑주 · 박종서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1. 서론

인간은 일찍이 지표상에서 하천, 동굴, 구릉 및 산록 등에 다양한 거주 공간을 형성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공간의 점유는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식량 구득을 위하여 경지가 필요하였고, 그렇지 못한 장소는 잉여 물자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소를 점유하게 되었다.

하천이나 바다에 의해 분리된 지역 간의 교류는 배라는 교통수단이 필수적이다. 배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물자와 사람을 수송하는 일을 하였다. 하천의 포구에는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포구는 바다의 외항이나 인접 지역으로부터 물자나 사람의 출입이 잦은 거점이 되었다.

포구의 기능은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여 갔다. 또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포구의 역할과 기능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천을 따라 거시적인 포구 취락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시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저차의 포구 취락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때 그 지역의 특수성 파악은 물론이고 일반성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기록의 보존에도 목적이 있음을 밝혀 둔다.

## 2. 연구 지역 및 방법

금강 하류의 여러 포구 취락 중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일제 강점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지역과 관련된 연구 자료가 미흡하여 전적으로 현지답사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발행 시기를 달리하는 지형도의 비교 및 이 지역을 잘 아는 촌노, 해당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하였다.

## 3. 포구 취락 입지 조건

### 1) 자연적 조건

입포는 금강의 배후 습지를 주로 개간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금강 하류부는 강경-하구 간을 말하는데 입포-강경 간 13.5km, 입포-군산 간 23.5km의 주행거리이다. 금강 본류로 셋강인 입포천이 유입되고 있다. 수운과 관련이 깊은 하천의 결빙기간은 대략 12월부터 2월 상순까지인데, 이 기간에 하천의 결빙일수는 30~40일 뿐이어서 한강 수계와 비교하여 금강 수운의 장점이다.

하계 강수의 집중도가 큰 것은 계절적 유수량의 증감을 가져오고 있으며, 한국 하천의 내륙수로 이용 상 큰 결함이라 하겠다. 금강 유역의 강수량 분포는 하류가 연강수량 1,000mm, 공주 부근이 1,300mm로 상류 지역으로 갈수록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금강은 다른 하천에 비해 발원지의 해발고도가 높지 않으나 하천의 길이는 길어서 우리 나라 하천 중 경사가 가장 완만한 하천이다. 또한 하상계수 1:298로써 우리 나라 하천 중 낮은 편이다.

풍향은 선박의 통행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계절적으로 춘계에는 북서풍, 하계에는 남서풍, 추계에는 서풍, 동계에는 북풍이 각각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서풍 계열이 탁월한 것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것과 아울러 특히, 하류부 군산~강경간 통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며 수운 이용 상 유리한 입지 인자이다. 또한 하류부 종단면은 하구에서 강경간은 대체로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하폭은 강경 392m, 입포 60m, 하구부 1,750m 정도로 대형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였다.

## 2) 인문적 조건

우리 나라 하안에 있는 浦, 渡, 津이라는 지명을 가진 지역은 나루터 취락이 발달하였다. 금강 하류에 이러한 지명이 붙은 지역은 충청남도에 청포, 입포, 완포, 옥포가 있고 전라북도에 상포, 하포, 난포, 성포, 판포, 응포, 나포, 서포, 월포가 있다.

홍경희에 의하면 낙동강의 경우 浦가 붙은 지명은 낙동강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하류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포는 일찍이 나루 기능을 수행하고 내륙수로의 입지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과거에 해안지방과 내륙지방과의 범선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보다 큰 포구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육상 교통이 발달되기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입포는 작은 포구로써 전북 익산시 응포면 제성리로 건너가는 나루가 있었다. 또한 입포는 서해안과 가까운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운을 통해 들어온 수산물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상업이 발달하였다.

## 4. 취락의 발달

### 1) 일제 강점기 이전의 취락(1910년 이전)

지곡면 남당진에 있던 나루의 기능이 입포로 이전한 것은 1870년대이다. 나루는 관청의 권력을 배경으로 옮겨 온 것이었고, 입포 지역의 배후 습지 개간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당시 배후 습지는 본류로 유입하는 자유곡류천인 셋강이 흘렀고, 갈대가 무성한 자연 상태로 존재하였다. 상입포에는 해발고도 10m의 내외의 능선 주변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하립포에는 나루의 기능이 이전되면서 그 관리를 위해 한 채의 가옥이 나루 부근에 있었다. '하립포'라는 자연촌 명칭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구 취락이 형성되면서 입포가 상·하립포로 분화된 것이며, 지명 자체에 취락 형성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류와 인접한 셋강에는 이미 어선이 입항하고 있었다. 어선이 나루 부근으로 입항하지 않고 셋강으로 입항한 이유는 배의 정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셋강으로 정박한 어선의 어부들에 대한 숙식 제공과 생선 거래 알선의 필요성 때문에 셋강 가까이에 한 채의 가옥이 있었다. 따라서 포구의 본격적인 개간 전에는 상입포에 중심 촌락이 분포하였고, 하립포에는 나루의 기능 및 어선의 출입과 관련하여 두 채의 가옥이 분포하고 있었다.

### 2) 일제 강점기 이후의 취락(1910년 이후)

#### (1) 취락의 형성기(1910-1930)

1898년 군산이 개항되면서 금강 수운의 기능은 어느 시기보다도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진 조선토지조사사업이었다. 이것은 입포 지역의 배후 습지 개간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토지를 생산력의 기초로 삼았던 당시의 경제

구조로 보아 토지가 식민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침탈 대상이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점유된 국유지는 1920년 이후부터는 일본 이민과 식민자들에게 불하하도록 하였다. 입포 셋강을 따라 개간된 농경지는 일본인 植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였다.

하립포의 택지는 배후에 낮은 구릉성 산지와 전면에 셋강을 두고 있어 전통 촌락의 입지인 背山臨水의 양상을 갖추고 있으나 남동쪽으로 금강을 두고 있어 내륙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와는 다르다. 기능체들은 배후산지의 능선에서 셋강 쪽으로 보아 능선 남쪽에 면사무소, 순사주재소, 우편소 와 그 전면에 간선도로와 시장이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에 시장은 현재의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400여m 떨어진 곳에 있었다.

1914년 9월에 총령 136호 '시장규칙'을 발표함으로써 식민경제 침탈의 교두보를 확고히 하였다. 입포 시장은 '시장규칙'에 따르면 제1호 시장으로 정기시장(보통시장)의 범주에 속했다. 입포의 3, 8일 정기 시장은 그대로 열리고 있었고, 외항으로부터 입항하는 생선 및 소금은 無時로 거래되었다. 그것은 충남 및 전북 일부 지역에 주로 거래 범위를 갖고 있었다.

## (2) 입포 취락의 발달기(1930-1960)

입포의 배후 습지가 택지, 시장부지, 경지로 개간되어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하립포의 과육과 시장 분포는 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뻗은 간선도로의 서편에 치우쳐 발달하고 있었고, 경지는 간선도로 동편과 셋강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다. 경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 되었고 일부 밭은 마을의 배후 산지의 산록에 분포하였다.

간선도로를 따라 일제 시대에 분포한 기능체는 배후 산지 쪽으로는 도정공장, 행정대서, 미곡상, 우편소, 노동조합, 어업조합, 유흥업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셋강 쪽으로는 여관, 곡물 검사소, 음식점, 양복점, 잡화상, 여인숙, 어업조합 공판장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취락은 도로를 따라 상업적 기능이 강한 가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지붕의 재료는 주로 함석, 기와, 벚짚이 이용되었고, 함석집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당시의 일반 농·어촌과는 다른 경관을 보여 주었다.

곡물검사소는 부여군내에 부여와 입포 두 곳에 두었다. 입포는 주로 부여군내에서 집산된 벼가 현미로 도정되어 전용 목적에 선적하여 군산으로 이동되는 공출항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였다.

입포로 입항한 생선과 도정 공장에서 공출 되는 현미의 荷役은 객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컸다. 당시에 활동한 객주는 6명이었는데 현재 두 사람이 생존해 있다. 객주의 출신지는 모두 입포 현지 사람들이었다. 객주는 쌀의 先貸와 생선의 경매를 주관했고 객주의 문서 수발은 서기장이 맡아했다.

초기의 시장은 생선, 잡화, 연료용 나무, 곡물 등이 거래되었다. 1930년경의 시장은 기존의 위치에서 400여m 떨어진 간선도로 쪽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시장주변에 분포하는 기능체는 1930년대에 술집, 옛 제조 공장, 과자 제조 공장, 잡화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1940년대에 술집, 떡 방앗간, 포목점, 한약방, 잡화상이 분포하고 있었고, 1950년대에 술집, 포목점, 기성복점, 주류도매상, 한약방, 잡화상이 분포하였다.

## (3) 입포 취락의 쇠퇴기(1960-1983)

1950년대 말까지 포구에 어선과 여객선은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수송수요의 팽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에 힘입어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수운 기능의 지위와 역할이 위기를 맞았다. 또한 1950년대에 어업협동조합이 창립되면서 이전까지의 수산물 유통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어민들이 객주로부터 자금을 빌려 고기를 잡아오다가 어업협동조합이 창립된 후에는 이곳에서 자금을 빌리게 되었다. 객주와 조합의 자금 대부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객주의 경우는 대출과 변제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이 덜 하였지만 조합의 경우는 그렇잖았다. 그것은 영세 어민들의 자금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또한 영세 어민들의 貸付 역할을 해왔던 입포의 객주들은 어업협동조합을 계기로 사업 방향을 강경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입포는 강경에 大港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게다가 1960년대 이후에 포구에 밀려드는 토사는 입포의 쇠락을 가중시켰고, 1970년대 이후에는 世人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조그만 마을로 변화하고 말았다. 1983년 12월 5일 금강 하구둑 공사 착공과 1990년 11월 20일 준공이 되고, 1994년 8월 30일 배수갑문을 닫고 담수를 시작하면서 내수면어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 4. 결론

본 연구는 입포 지역의 포구 취락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통하여 지역성을 밝히고 나아가 사라져 가는 시·공간적 자료의 수집 및 기록의 보존에 목적이 있다.

1870년대의 포구의 경관은 주로 자연 제방과 배후 습지였다. 셋강이 유입되는 금강은 한강 등 다른 하천과 비교하여 수운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입포는 나루 기능을 수행하고 서해안과 가까운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운을 통해 들어온 수산물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상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1898년 군산의 개항은 금강의 수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하항의 중간 기착지로써의 입포 지역의 포구 기능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1910년 이전 즉, 포구 기능의 취락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입포는 상입포에 중심 촌락이 분포하였고, 하립포에는 나루의 기능 및 선박의 출입과 관련하여 두 채의 가옥이 분포하고 있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의 토지조사사업은 입포 지역의 배후 습지 개간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일제의 시장 정책도 포구 취락의 시장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30년대의 포구 취락에는 간선도로를 따라 각종 기능체들이 들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고, 촌락의 형태는 가촌이었다. 당시의 일반 농·어촌과는 달리 주로 함석집이 많았다. 포구의 기능으로 어선의 입항과 현미의 공출에 따라 객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특이하다. 포구를 통한 현미의 공출은 사회·경제적으로 입포의 포구 취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였다.

1950년대에 어업조합의 설립은 자금의 대부 방식에 있어서 객주보다 辨濟에 있어 시간적 제약이 커서 영세 어민들과 객주의 기능을 쇠퇴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입포의 상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196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육상 교통의 발달로 내륙 지역과 금강 연안 및 외항의 수운 연결 기능이 마비되었고, 그 후로 유지되었던 내수면 어업도 1980년대 초반의 금강 하구둑 공사로 인하여 급격히 쇠퇴하였다.

#### 참고문헌

- 나도승, 1992, 공주·금강권의 역사지리, 1992, pp.190-307.
- 부여군지, 1987.
- 신중동국여지승람, 권17.
- 호서읍지, 임천군.
- 팔역 이지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집, 1984, 한국의 인구나 취락의 연구, pp.125-302.
- 조선총독부, 1923, 조선의 시장, pp.319-336.
- 조선의 시장경제, 1929, pp.277-295.
-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 한주성, 1996, 교통지리학, 법문사.
- 국립농업경제연구소,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1977, pp.123-140.
- 대전일보, 1986, 부여 笠浦場.